



中, 총칭직할시 물류업 현황 창장 상류지역 최대 물류기지 역할 수행

총칭직할시는 2000년부터 '대교통' 전략 및 교통체제 개혁을 실시해 운송능력을 증가하고 공공 교통인프라 시설을 개선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에는 '關於加快現代物流業發展的意見(현대 물류업 발전 가속화 의견)'을 발표하고 물류운송의 정보화, 네트워크화, 공공 물류 플랫폼 구축 등 현대 물류업 발전을 촉진해 왔다.

총칭직할시는 서남지역의 동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후베이성, 후난성, 꾸이저우성, 쓰촨성, 산시성(陝西省) 등과 인접해 있다.

총칭은 창장 상류지역의 수운, 육로, 항공의 종합 교통 중추와 물자 집산지로 지리적 우위를 차

지하고 있다. 특히 총칭은 서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창장 황금수운을 보유한 내륙 항구 도시로 삼협댐 건설이 완공되면 운항 조건 개선으로 내륙 하천 운송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총칭시 물류업 증가액은 2000년 1백1억3천만 위엔에서 2005년 2백19억위엔으로 연간 평균 16.7% 증가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 정도이다.

공상 등록된 물류기업은 2005년 말 현재 4백 89개 업체이며, 이중 등록자본 1천만위엔 이상 기업은 41개 기업이다.

총칭항은 광산물, 인, 석유, 화학비료 운송의 중추항구로서 2010년이 되면 총칭직할시는 창장 상류 최대의 종합 수운 중간 교역항, 컨테이너항, 항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총칭직할시는 총칭의 종합 우위를 이용지역 물

류와 배송 물류를 발전시키고자 하며, 구조의 합리화, 배치의 최적화, 물류 플랫폼 건설, 제3자 물류발전 등을 통해 현대 물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케냐, 합성수지 및 관련제품 급성장 PVC 수요 증가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산업뿐만 아니라 페인트, 잉크, 코팅, 접착제의 제조에도 쓰이는 화학제품으로 야채와 빵, 고기 등의 식료품 포장과 쇼핑백 사용 증가로 케냐 뿐만 아니라 동아프리카 전반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급성장하고 있다.

케냐내 플라스틱과 폴리스틸렌제품 제조회사는 70개사 정도이며, 대부분이 HDPE와 LDPE 원료를 전량 수입해 자체 생산하거나 가공을 하기 위해 다른 회사에 공급하기도 하는데, 합성수지는 Synresins, Basco 페인트사가 소규모로 제조하고 있다.

플라스틱제품 중에서 PVC가 현지시장에서 두 번째 수요를 기록하고 있는데, PVC는 건설업과 빌딩과 진열창과 같은 곳에 사용되고 수로관, 의약품, 전선, 케이블, 포장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기타 합성수지에는 생수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PET와 신발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EVA(Ethyl Vinyl Acetate)와 DOP(Diethyl Phthalate)의 수요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Mobil, Shell BP, Exxon, ICI and Sarbic&Qatar와 같은 몇 개의 회사들이 케냐에 진출해 있으며, Sarbic과

Qatar사는 케냐에 지사를 갖고 있다.

동아프리카에서 현재까지 케냐가 이 산업에서 선두주자이고,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Economic Survey 2006'을 참조하면 케냐 총 수출의 1.97%가 플라스틱이고, 미가공 원료(primary) 및 가공(non primary) 플라스틱에 대한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수성페인트와 코팅은 합성수지시장에서 54.4%의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주요 페인트 제조사들은 Basco, Galaxy, Grand Paints, Sadolin, Crown, Solai, Twiga, Sigma, Synresins Ltd. 등이며, 이 회사들은 페인트 뿐 아니라 도료, 에나멜 등도 제조하는데 용매제, 열가소성 메탄아크릴, 불투명 폴리머, TiO2(Titanium Dioxide)등의 원료는 해외에서 들여오고 있다.

Crown사와 Basco사는 회사자체 소비를 위해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Polysynthetics사와 Synresins사는 다른 페인트회사에 합성수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특히 Synresins사는 페인트와 접착제와 코팅, 잉크, 플라스틱 제조에 필요한 PV Homopolymer와 Long Oil, medium oil도 생산하고 있다.

포장산업에서는 가벼우면서 초기능적인 플라스틱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PET는 유리를 대신해서 탄산음료수 병으로 쓰이고 있고 일상용품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재질면에서도 발전해 열저항성과 내구성으로 금속과 유리를 대체하고 있다.

포장용기 사업에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HDPE는 우유,



세계 등을 담은 용기, 가방, 산업포장 등에, 저밀도 폴리프로필렌은 파렛트와 농업용 포장지, 가방, 코팅, 용기 등에, 폴리프로필렌은 필름과 상자, 전자파 용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Ticona 사는 표준기계로 열성형과 사출성형이 되는 Vectran을 생산하고 있다.

합성수지의 관련제품이 다양하므로 케냐 시장에도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최상일 것으로 보인다.

케냐 시장판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품에 대한 기술, 상세정보가 있는 카탈로그나 상품소개서가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데, 현지 인터넷 형편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홈페이지나 전자메일 홍보를 지양하고 인쇄된 카탈로그와 샘플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캐나다, 차에 건강효능 표시 승인
항산화물질 많아 심장 질환·비만 예방 등 인정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자연건강 제품 위원회(Natural Health Products Directorate·NHPD)는 차를 자연 건강 식품으로 간주하고 차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것을 최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NHPD는 장기간의 평가 끝에 이번에 홍차와 녹차 우롱차 제품의 라벨에 △ 건강을 유지하는 효능이 있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 △ 주의력(alertness)을 높이는 효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 △ 심장혈관 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을 돕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특히 녹차는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 있다는 표시와 함께 건강에 이로운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녹차를 마시는 것은 체중을 줄이는 데 보조적 수단(addunct treatment)이 된다는 것을 승인했다.

“이번 건강 효능 표시 승인은 차를 즐겨 마시는 수백만의 캐나다 사람들에게 희소식이다. 건강 효능 표시 승인은 소비자들에게 차를 마시면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캐나다차협회(Tea Association of Canada)의 루이즈 로버즈(Louise Roberge) 회장은 말했다.

캐나다차협회는 캐나다인들에게 차의 품질과 건강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회로 캐나다의 우수한 차 제조 회사와 스리랑카, 인도, 케냐 등 차 생산국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으로 캐나다의 차 제조 회사들은 제품의 포장에 이번에 승인한 건강 효능을 표시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적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차의 건강 효능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들 연구에서 차를 마시면 심장혈관질환과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시사됐다.

미국의 영양 전문가들 위원회가 작성해 미국 임상영양지(Journal of American Clinical Nutrition) 2006년 3월호에 발표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료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건강에 가장 이로운 음료의 순위에서 차는 물 다음의 자리를 차지했다.

“차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는 천연 플라보노이

드가 많이 들어 있다. 실제로 식품들 가운데서 항산화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것이 차다”라고 토론토대학 영양학과 교수인 카롤 그린우드(Carol Greenwood) 박사는 말했다. 항산화 물질은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유리기(free radical)를 중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유리기에 의해 인체가 장기간 손상을 입으면 암을 비롯해 심장혈관질환 등의 만성 질환들이 유발된다.

차는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음료다.

2006년의 캐나다 차 시장 규모는 약 3억1천9백만달러에 달했다. 캐나다인들은 연간 7백만컵 이상의 차를 마신다. 2005년 캐나다의 1인당 차 소비량은 69.98리터(2백80컵)으로 1996년의 48.9리터보다 43% 늘어났다.

美, 폴리스틸렌 식품용기 금지
지역내 레스토랑·업소 6개월 이내 반납 조치

미국 LA 카운티 내에서 폴리스틸렌 재질의 식품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관련 업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음식점과 가게에서 스트로폼으로 잘 알려진 폴리스틸렌 재질의 식품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모두 반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상정된 조례안이 시행될 경

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90일 안으로 보고할 것을 공공사업국에 지시했다. 특히 카운티 지역 내 레스토랑과 업소에서 폴리스틸렌으로 제작된 용기사용을 금지하는 안도 함께 조사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방안은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자체 조사 결과 로컬 해변에 떠다니는 오염물질 절반 이상이 폴리스틸렌 재질의 식품용기인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카운티가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부속 기관, 후원하는 행사·이벤트 등에서 폴리스틸렌 재질의 1회용 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테이크아웃 음식 주문 시 식당에서 사용하는 용기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 LA 한인타운 뿐만 아니라 카운티 내 레스토랑의 영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소식과 관련해 중앙일보는 신문을 통해 “스티로폼 용기사용 금지 법안의 현실화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종이나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용기로 미리 전환하는 음식점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소재의 용기를 개별 디자인할 경우 기존 용기보다 제작비용은 2~3배 더 드는 반면, 업소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웰빙족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타운 음식점들 사이에 확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남가주에서는 말리부, 산타모니카, 칼라바사스, 헌팅턴 비치 등의 도시에서 이미 자연분해가 안되는 폴리스틸렌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도 2009년부터 폴리스틸렌 용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K]